

심을 갖겠지!’

마리우스는 벤치 앞을 지나서 바로 앞 오솔길 끝까지 가자 거기서 발길을 되돌려 다시 아름다운 처녀 앞을 지났는데 이번에는 얼굴이 몹시 새파랗게 질렸다. 게다가 심한 불쾌감마저 느꼈다. 그는 벤치와 어린 처녀에게서 멀어졌다. 그리고 그녀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그녀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마리우스는 다시는 벤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 오솔길 가운데까지 오자 걸음을 멈추고 평상시 그러면 결코 하지 않는 일이지만,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둘러보고 거기에 있는 벤치에 앉아 몽롱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저 사람들의 흰 모자나 검은 옷에 반해 있는 만큼 저 사람들도 이윤나는 바지와 새 윗도리를 보고 아무것도 못 느끼진 않았겠지.’

마리우스는 15분 정도 앉아 있다가 마치 후광에 싸인 듯한 그 벤치를 향해서 다시 한 번 전진하려는 듯 일어섰다가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움직이지 않았다. 15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그는 매일 그 처녀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는 저 신사도 아마 자신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열심히 배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거라는 사실을 생각해 냈던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야 마리우스는 아는 사이도 아닌 저 사람을 함부로 르블랑 씨라고 별명으로 부른다는 것은 입 밖에 내어 말은 하지 않아도 다소 실례가 된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이런 까닭으로 마리우스는 몇 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선 채 손에 든 지팡이 끝으로 모래 위에 그림을 끼적거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르블랑 씨와 처녀에게 등을 돌리고 벤치와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 집으로 와 버렸다.

그날 저녁 마리우스는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것을 잊었는데 저녁 8시가 되어서야 그것을 깨달았지만 생 자크 거리까지 가기에는 이미 너무